

● 남북통일 기원미사 강론

신학생 시절 군사독재 정권 때 가슴 뜨겁게 부르던 노래가 생각납니다.

“헤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오. 우리 어찌 주저하리오.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요.” ‘광야에서’라는 노래입니다.

오늘 교회는 남북통일 기원미사의 본기도에서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흠어진 사람들을 모으시고 모인 사람들을 지켜 주시니, 갈라진 저희 민족을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흠어진 가족들이 한데 모여 기쁘게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예당초 하나가 아니었다면 갈라질 수도 없습니다. 갈라져 나간 것을 다시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움직이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염원과 그 염원에 부합되는 행동을 우리가 먼저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진정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 동포들이 하나 되는 뜨거운 감격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변화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자세를 사도 바오로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에페 4, 31~32)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간 남북은 이가 갈릴 정도로 악의를 가지고 분노하였고 원한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같은 분노와 격분을 위정자들은

교묘히 정권연장의 도구로 이용하였던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가 될 수 없었고, 우리들 마음에도 굳이 하나가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하여 남북이 분단된 상태가 오늘에 이르도록 방치한 씻을 수 없는 죄를 함께 지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갈라진 운명에 가슴 치며 통곡하고 반성할 때, 분명 하나가 되게 해 주실 수 있으신 주님의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또 너희를 가없이 여기시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흠어 버리신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를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다.”(신명 30, 3)

남북의 통일을 기원하며 통일의 모델이 되는 구약의 요셉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사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슬한 죽을 고비를 넘기며 끝내는 이집트 제2의 실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기근이 들어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온 용서 못할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형들의 뉘우치는 마음을 읽은 요셉은 시종들을 바깥으로 내 보낸 뒤 북받치는 감정을 누를 길 없어 큰소리로 울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집트 전역에서 들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해와 용서, 맺힌 응어리와 한이 모두 풀어지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감격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남북의 형제들이 서로 용서하여 부둥켜안고 실컷 울 수 있는 통일의 그날을 꿈꾸어 봅시다. 그 날이 빨리 올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마태 18, 22)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지어내신 주님, 저희가 모두 주님을 닮게 하소서.
 - 사랑으로 하나 되신 주님처럼 저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 한 핏줄 한 겨레이면서도 서로 혈통고 싸웠던 저희 잘못을 깨우쳐주소서.
 - 분단의 깊은 상처를 낫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화해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 인류의 일치를 바라시는 주님, 갈라져 사는 저희 겨레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 저희의 무관심을 깨닫게 하시어 겨레의 일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가진 바를 나누게 하소서.
 -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평화 통일을 이룩하게 하소서.
 - 온 겨레가 주님을 믿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평화의 모후시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이며,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공소일반공지●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익는 성가대장에게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식사 친교 후

▶바느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식사 친교 후

예수 성심 성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굽어 죽지 않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결단 사람들도 부르시어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세번)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사목회의 (오후 6시30분)

오늘 미사 후 김직현 형제 자택에서 사목회의를 갖습니다.

◎ 야외미사 찬조에 감사드립니다.

각 구역별 찬조 및 개별 후원에 힘입어 야외미사와 더불어 행사를 즐겁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찬조 내역은 공소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축하! 한인본당 골프대회 여자부 우승!

제3회 피터보로 성당 주최 '온타리오 한인본당 친선골프대회'에서 윤명희 엘리사벳 자매가 영예의 여자부 1 등상을 수상 했습니다.

◎청소년 하계 여름캠프

-집합시간 : 8시45분 (시간엄수요망)

-준비물: 목주, 침낭(담요), 수영복(반바지), 세면도구, 따뜻한 옷(긴팔), 손전등, 운동화, 벌레 예방약

◎ 박원호(유스티노) 형제 가족 이주

저희 서부공소에서 세례를 받고 그동안 주일미사에 열심히 참여하시던 박숙희(멜라니아) 자매 부부가 오는 6월 27일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모쪼록 하루속히 정착하여 새 터전에서 평안하시길 빌며 주님의 가없는 은총으로 성가정 이루시길 기도 드립니다.

◎ 서부공소 인터넷 클럽 안내(가입-일괄 접수중)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와 교우간에 친목을 도모하고자 개설한 우리 공동체의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가입방법: 해외거주자인 관계로 굿뉴스 담당자에게 **아이디 3개(중복확인 후 1개 선택함)**, **비밀번호,실명(한글)**,현주소, 전화번호,소속본당, 세례명을 메일(goodnews@catholic.or.kr)로 보내시면 즉시 가입을 대신해드립니다. 개별 가입이 원만치 않은 교우 여러분은 기재사항을 서기(**한택중 형제**)에게 주시면 일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바느기도회 : 6월 27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장명길 형제 자택

◎ 성서 100주간 시행

구약과 신약 성서를 3년에 걸쳐 공부하고 묵상하는 참신앙인의 샘터입니다. 5월 중에 각 구역별 첫모임을 통해 참가자가 확정되어 예정대로 6월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가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2, 5, 6 구역-김영삼 시몬 형제 (15명)

▶3, 4 구역-장용경 루시아 자매 (8명)

◎ 6월 구역모임

▶4구역: 6월30일 오후7시 안세영형제 자택

◎ 통신교리 모집 안내 (5차)

세례를 받고자 희망하시는 분은 선교부장 (박재영 바오로형제)에게 신청 바랍니다.

◎ **헌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정성껏 봉헌합시다.

◎ **매주일 예배하는 성전은** 우리가 나눔과 일치의 공동체로 가꾸어 주님의 뜻을 이룩해야 할 거룩한 곳입니다. 항상 깨끗이 사용합시다.

◎ 여름 미사 복장

미사에 참석할 때는 노출이 심한 옷이나 슬리퍼는 삼가 해 주십시오. 단정한 옷차림으로 미사에 참석합시다.

◎ 주간 전례

▶6월21일(목) 낮 12시,성A.곤자가수도자기념일

▶6월21일(목) 오후 8시,성A.곤자가수도자기념일

◎성령세미나 (장소: 토론토한맘성당)

6월 27일-29일 저녁 6:00 - 10:00

6월 30일 (토) 오전 9:30 - 오후 9:00

2007-25

2007. 6. 24.

남북통령 기원미사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4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2시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 성사 2년에 일회, 1개월 교육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미사전례

해설 |이민 차주 해설 김근효

화답송 |주님 흠어진 당신 백성을

모아드리소서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의 교회는 하나의 빛이니,

모든 곳을 다 비추어도 갈라지지 않는다.

. ◎알렐루야

성가

입당 (16) 온 세상아 주님을

봉헌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성체 (500) 평화의 하느님

퇴장 (200) 열렬하신 주의 사랑

독서

6월 24일 이동기 이정숙

7월 1일 박용대 박명옥

7월 8일 정경래 정문진

봉헌

6월 24일 김영삼 김정현

7월 1월 정경래 정문진

7월 8일 박용대 박명옥

천교

6월 24일 천교없음 7월 1일 백합팀

7월 8일 신비팀 7월 15일 빛팀

2007년 6월 17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748.00
Total:	<u>\$ 748.00</u>